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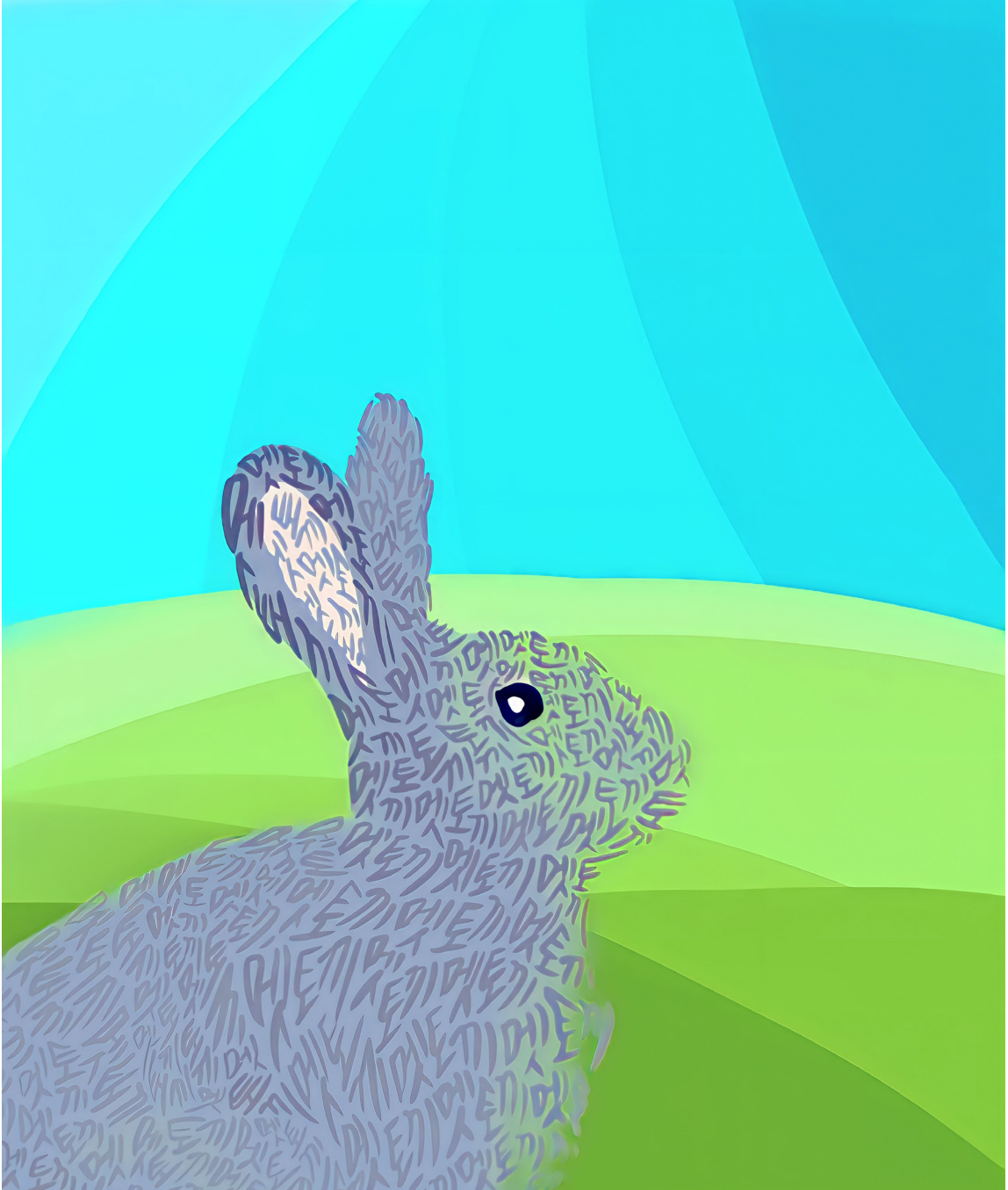
한글 새소식

ISSN 1225-0538

605

2023. 1.

한글 새소식, 달마다 5일 펴냄 | 제605호(2023. 1. 5.) | 1986년 6월 12일에 제3종 우편물 (내급 인가 받음) | 펴낸 데: 한글학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 한글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토끼. (작가: 진관우)

1. 바르고 쉽고 고운 말을 가려 쓰자.
 우리의 주장 2. 일상의 글자살이는 한글로만 하자.
 3. 한국말과 한글을 온 누리에 펼치자.

※ 한글 새소식에 실린 글의 내용은 우리 학회의 뜻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새해 인사	『큰사전』 자료공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김주원	2
머리글	한글의 꿈, 세종의 꿈 조지은	4
새해맞이 대담	새 누리 펼치는 힘, 한글! 강병인·한재준·허경무	6
우리말과 우리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중요한 이유 김선철	10
	바람이 분다 홍성진	12
	반려동물 용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을까? 박예진	14
한국어교육 이야기	창의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용기 손창현	16
수상 소감	제1회 한글·한국어 유튜브 국제 공모전 수상 소감 배유미	18
성명서	‘한글날’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반대한다!	19
새소식	동대문구와 공공언어 사용 업무 협약	20
	우리말 약어 만들기 학술대회	21
	12월 알음알음 강좌	22
	새로 나온 책	23
학회 마당	우리말 알아맞히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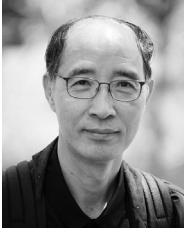
누리집 :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 saesosik@hangeul.or.kr

한글 새소식, 1972년 8월 8일에 월간으로 등록(등록번호: 종로 라00082) 발행인 : 김주원 주간 : 성기지 인쇄 : 형설출판사 펴낸 데 : 한글학회
 주소 : [0317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 02) 738-2236~7 전송 : 02) 738-2238 누리편지 : webmaster@hangeul.or.kr

- 한글 새소식은 회비를 내신 일반회원(한말글 문화협회 회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한글 새소식 일반회원이 되시려면, 회비(1년치 10,000원)를 국민은행 009-01-0428-355(예금주: 한글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한글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입회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일반 우편(위의 주소), 전송, 누리편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내시면 됩니다.

『큰사전』 자료공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kjwn@snu.ac.kr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한글학회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우리 학회는 주시경 선생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우리 말과 글을 겨레의 얼로 간주하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 왔습니다. 학회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길이 남길 가치가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를 모두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후대에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록 저장고를 아카이브라고 합니다만 자료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글학회 자료공간”이 만들어져야겠지만 그 중에서 먼저 “『큰사전』 자료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큰사전』과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지요. 작년이 조선어학회 수난 80주년이었습니다.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였습니다만, 단순히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이라는 수동적인 명칭을 붙일 것이 아니라 총괄을 들지 않았지만 정신력과 붓의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든 취지의 적극적인 명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독립투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2020년에 『말모이』 원고와 『큰사전』 원고가 보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큰사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큰사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큰사전』에 관한 상세한 기록물은 물론 없습니다. 단편적인 회고담을 통해서 『큰사전』의 편린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냥 추억거리처럼 전해졌을 뿐이지요.

하나의 사례를 여기에 보이겠습니다. 『큰사전』은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3권의 초판본은 사전을 만든 한글학회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학회에는 『큰사전』에 관련된 사정 등을 이야기해 주실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료공간에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그저 단편적 회고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기록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제3권 초판본을 학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책의 출간 시기가 1950년 6월 1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판 일자 재판 책의 판권지를 보면 1950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장본으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인쇄가 된 뒤에도 제본을 마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이 터지자 사흘 만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사무실이 적 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3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나머지 책들을

만들기 위한 원고입니다. 제4권은 첫 교정을 보았고 제5권은 조판을 끝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6권의 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유제한 선생이 최현배 선생과 의논한 뒤 적이 점령하고 있는 학회 사무실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원고를 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겠지요. 그 원고는 전체가 52묶음(한 묶음에 400자 원고지 300쪽 내외)이라고 하니 제6권만 해도 8묶음이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서울 비우기 명령이 떨어져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원고를 들고 피난 간다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서 결국 김장독 문던 한국인의 습성대로 최현배 선생의 혜화동 집 마당 한 칸을 깊이 파서 원고를 두 겹의 독에 넣고 묻어 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9월 18일에 서울이 수복되었지요.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땅속의 물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또 있을지 모를 이러한 난리에도 원고를 지킬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조선실록’을 떠올렸던 것일까요. 회원을 비롯한 11명을 모아서 원고를 베깁니다. 그때 베겼던 원고가 학회에 한 묶음(429장)이 남아있습니다. 표지에 “ㅎ-허리(여벌)”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제6권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묶음은 2020년의 보물 지정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원고는 6.25를 겪으면서 원고 보존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든 여벌이므로 그것 나름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예상은 못 했지만, 대비는 했던 것인데 1.4 후퇴 때에 또 다시 서울을 떠나게 되었지요. 두 벌이 있으니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원본은 유제한 선생이 천안으로 가지고 가고, 베김벌 즉 여벌은 최현배 선생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유제한 선생이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신문사에 자리를 얻어 정태진 선생과 함께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이 출판된 후에 원고는 하나둘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17묶음이었습니다. 이 중 5묶음은 “민족 독립운동의 생생한 증거물”이라 하여 독립기념관의 요청에 응해서 1985년에 기증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에 『큰사전』 원고를 보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던 중 뜻밖에 「범례」와 「ㄱ」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총 14책(한글학회 8책, 독립기념관 5책, 개인 소장 1책)이 1건 보물로 일괄 지정되었습니다. 한글학회(즉 조선어학회)의 원고인데 “개인 소장”이 된 것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사전』 원고는 400자 원고지에 쓴 것입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기에 사전 작업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원고는 카드에 초벌 작업했던 것을 베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16만 장이 넘는 그 많던 카드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보관 장소의 문제도 있고 용도상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폐기하였을 것입니다만, 어쩌면 기적과 같이 몇 장의 카드가 어느 집 다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이 나타났듯이 암울한 시기에 이 겨레의 염원을 담고 작성되었던 『큰사전』 원고 카드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22년에 50여 명이 땀을 흘리며 『큰사전』 입력 작업을 마쳤으므로 자료곳간의 바탕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큰사전』 자료곳간”을 비롯하여 모든 활동을 “한글학회 자료곳간”에 담아서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겠습니다. 

한글의 꿈, 세종의 꿈



조지은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jieun.kiaer@orinst.ox.ac.uk

세상에 성군은 많이 있었다. 백성을 위한 왕도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사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세종만큼 큰 그림에서 백성을 생각하고 큰 선물을 한 군주가 또 있을까? 나는 옥스퍼드에서 한글을 소개하는 강의를 매해 한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 전형필이 당시 만 천 원, 지금 돈으로는 30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보다도 10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진정한 무가지보인 것이다. 친한 동료가 셰익스피어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할 때, 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야기한다. 사실, 언어학적으로도 이보다 중요한 문서가 세계사적으로 존재할까?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 알려진 바가 아직도 미비하여서 언어학자로서 부끄럽고 안타깝다.

한글을 만든 세종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던 것일까? 세종실록을 보면,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당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 처음부터 새로운 문자를 생각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이두문이라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다. 그렇지만,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이두조차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이야 어찌 범죄한 바가 크고 작음을 알아서 스스로 고치겠는가.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율문을 알게 할 수는 없을지나, 따로이 큰 죄의 조항만이라도 뽑아 적고, 이를 이두문[吏文]으로 번역하여서 민간에게 반포하여 보여, 우부우부(愚夫愚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조 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은 폐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었으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입니다.” (세종실록 58권, 세종 14년 11월 7일)

세종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었다.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논리 정연하게 만들어져 있다. 자음은 조음 기관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고, 획이 하나 더해지거나, 문자가 중복되면 소리의 값도 질서 정연하게

바뀐다. 알파벳과 영어 소리 사이에는 이러한 논리가 없다. 그런데, 한글은 시각적 유사성이 청각적 유사성을 동반한다.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방과 후에 가르쳤다. 집현전 학자 정인지가 말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아주 재미있어했고, 신기해했고, 쉽게 배웠다.

최근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는 한류 전시회를 기획해 이목을 끌었다. 나에게 가장 인상에 남은 점은 포스터에 한글이 가장 처음에, 가장 크게 등장한 점이다.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에 비추면 이례적이지 않다. 런던 시내에서 한글로 된 상표들을 요즘 자주 접한다.

나는 한류의 원동력이자 다음 세대 한류 4.0 시대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 한 해만 해도 트위터에 케이팝 관련 트윗이 78억 개에 달했다고 한다. 케이팝에서부터 드라마, 영화 등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말과 글이 있다. 대부분의 트윗은 한국인 팬덤이 아닌 글로벌 팬덤에 의해 작성되고 유통이 된다. 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한국어 자문을 맡고 있다. 작년에는 26개의 단어를 넣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한류 출신 한국어 단어가 사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팬덤 대부분은 한글을 아직 몰라서 로마자화한 한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많은 팬들이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려고 하고 있다.

세종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쉽게 문자 소통을 위해서 가능하면 쉽게 만들었다. 자음은 다섯 개의 기본자를 배경으로 하였는데, 종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가 쓴 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닐까 한다. 모음 역시 기본 모음과 이중 모음 사이의 관계가 임의적이지 않고 체계적이다. 자음자 19개, 모음자 21개로 10,773개의 문자를 만들 수 있다. 받침을 따지지 않자면 399개의 소리 가능성을 문자화할 수 있다. 포함 11,172개의 문자로 다양한 세계 언어의 소리들을 구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음성학자들이 쓰는 국제 음성 기호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자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나타낼 수 있는 소리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영어가 세계의 언어로 더욱 굳게 자리를 잡는 요즘 너도나도 다 로마자를 국가의 문자로 바꾸려고 한다. 과거 키릴 문자를 쓰던 곳에서도 로마자로 전향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한글이 로마자와 경쟁 관계에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한글이 로마자의 음성적인 부족함을 잘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로마자는 그 자체가 음성 문자가 아니다. 영어 철자를 배울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다른 나라 언어들 특히 비유럽 언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정확성이 떨어져서 혼란이 많이 생긴다. 얼마 전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의 김민재 선수를 “김민자이”라고 계속 발음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에게 한글은 최고의 문자이다. 그런데, 나는 한글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인의 문자 체계로도 쓰일 수 있는 희망을 본다. 배우기 쉽고 체계적이며 공유할 수 있는 음성 플랫폼을 만들어 줌으로써 세계인의 소통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교육의 기회가 없고 자국의 문자가 없는 이들에게 희망의 문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세종의 꿈 역시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문자가 되도록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새 누리 펼치는 힘, 한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과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갖가지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부심을 주었던 한글은 지난 한 해 동안 온 누리에 더욱 힘을 펼쳐 한류의 버리 구실을 하였습니다. 이에 『한글새소식』 신년호에서는 **강병인 글씨연구소 강병인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한재준 교수, (사)한국서체연구회 허경무 이사장**을 초대하여, 새해맞이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도 힘찬 날갯짓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역은이〉



▲ 강병인 대표.

△ 안녕하세요?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 세 분 선생님께 새해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문자 한글의 기능이나 우수성에 관한 것보다는 주로 한글 글꼴과 디자인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강병인 대표:** 안녕하세요. 전통 서예를 바탕으로 우리말의 고음 그리고 뜻을 적극적으로 글씨에 담아내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찾고 알리는 작업을 하는 강병인 멋글씨가입니다. 정말이지 힘든 일들이 많았던 범의 해가 저물고 깡충깡충 뛰면서 우리네 삶을 더 즐겁게 해 줄 토끼해가 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꿈꾸는 바대로 이루지는 그런 기쁜 한 해가 되길 두 손 모읍니다.

▲ **한재준 교수:** 이렇게 뵈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도 한국어와 한글 바람이 신나게 불었습니다. ‘글자가 비록 간단 요약하나 전환이 무궁하다’는 훈민정음의 확장성이 살아나는 듯 싶습니다. 세종 임금의 놀라운 창조력과 함께 불굴의 실행력까지 살려내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더 나은 쓸모를 찾는 일에도 큰바람을 일으키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허경무 이사장:** 한글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한글이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자로 거듭나고 있어, 한글을 창제한 국민으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한글로써 세계 제일의 문화민족이 되는 바람도 가집니다. 새해에는 한

글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빌어 봅니다.

△ 지난해에는 한글 멋글씨가 나라 안에 유행하였고, 한글 글꼴을 디자인한 의복 등 문화상품들이 외국인들을 매료하였습니다. 나라 안팎의 이러한 바람이 새해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한재준 교수:** 한글을 아끼고 빛내는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유행도 살펴야 하고 국내외 교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근본을 바로잡는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한글 철학, 한글 예술, 한글 디자인, 한글 글자꼴



▲ 한재준 교수.

들이 여러 매체와 상품으로 올라타고 생활 속 깊숙이 스며가길 기대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첫머리에 ‘천지의 도리는 오직 하나’라고 했고, 이어서, 소리와 글자의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리와 이치가 온 세상 만물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세상의 모든 소리와 이치가 한글 자모의 조합으로 나타나서 더 널리 이롭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천지인 삼재가 조화를 이루듯이, 매력 넘치는 한글이 쏟아져 나오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강병인 대표:** 저는 작년(2022년) 9월에 스페인한국문화원의 초대를 받아 한글 멋글씨 개인전의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개막식에는 200여 명이 넘는 스페인분들이 줄을 서면서까지 참석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높아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음악, 드라마, 스포츠의 한류 바람,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글 쓰기가 필요하고, 한글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작업하는 작가의 전시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어와 한글이 한류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한글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 정책의 확대가 절실하고, 특히 한글 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인 한글 쓰기가 한글 예술로 확장되어야만 한류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허경무 이사장:** 이제 세계가 한 울타리로 살게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한글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서예가들은 한문의 금문이나 초서 같은 해독하기 어려운 글자 공부에 많은 공을 들이고, 한문 서체를 모방한 기이한 한글 자형과 획순 바꾸기 현상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패션 시장에서 한글 언해본체 흘림 글씨로써 받은 호응은, 붓글씨의 특성에서 우리나라

는 획의 강약과 자유분방하면서도 조화로운 필선들이 생동감을 주는 오묘함 때문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한글 문자의 철학적 가치도 살리면서 높은 심미안으로 예술적 창조에 힘쓰다면, 한글은 세계 문자의 으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열들이 표준어를 제정하고 사전 편찬하는 일을 서둘러 함으로써 한글의 지위가 날로 높아지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문자 예술도 튼튼한 학술적 기틀 세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한글 글꼴 또는 한글 디자인의 멋과 가치를 나라 안팎에 더욱 널리 펼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경무 이사장

▲ 허경무 이사장: 한글 서체나 디자인의 멋과 가치를 널리 퍼려면, 그 바탕인 한글 서체의 올바른 정립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글 글꼴이나 디자인에서 이색적이고 기이한 표현 전술로 무분별하게 일시적 광고 효과만 생각한다면, 학술적 연속성도 축적도 이루지 못할뿐더러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자유방임으로 상업성에만 내맡기지 말고, 전문가 양성에 힘쓰는 한편, 우리 국민이 주체자로서 한글의 철학적 예술적 기반을 폭넓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한글 문자 예술을 대표하는 서예 분야는 한문에 가려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빨리 도약하려면 한글 서체의 학술적 바탕이 잘 구축돼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한글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재준 교수: 정책적 지원의 기본 방향은 한글의 원작자인 세종 임금의 『훈민정음』 머리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글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리버리면 한글은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말글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라나기도 어렵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세상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세상을 한 번 더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종 임금의 28자 체계가 우리말을 이어냈고 우리글을 있게 했습니다. 한글 산업이나 정책은 국어 정책의 갈래로만 다룰 일이 아닙니다. 외교부,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통합적인 대사업입니다. 한글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드러내는 도구와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통합 체계입니다. 소리와 꼴과 뜻을 하나의 이치로 이어낸 작품, 과학과 예술의 가치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강병인 대표: 한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

저 「국어기본법」에 맞먹는 한글 기본법이나 한글 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광범위한 한글 정책 지원은 요원합니다. 2013년 경 서울시 마루지 사업 자문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글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한글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시나 여주시 등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법규를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공예, 서예 등 분야에 다 있는 ‘진흥법’, 한글 단체가 새해부터 서둘러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한글 기본법’이나 ‘한글 진흥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글의 가치를 키우는 일을 넘어 ‘한글한글’ 이야기의 출발이자 마침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 한글의 멋과 가치는 이제 한류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묘년을 맞아 세계 속에 더욱 높이 경중 뛰어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를 위해 독자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병인 대표: 한글은 글 모르는 일반 백성을 위해 무엇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한글에 대해 쉽게 말해야 합니다. 소리를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누고 합하는 원리나 영영앙양, 솔솔술술, 한현흔 현환환 등 낮과 밤이 바뀌고 봄여름가을겨울이 돌고 돌 듯 순환의 원리로 세상의 소리를 쉽게 적게 한 것이 예입니다. ‘숫다’에서 ㄴ의 세로획과 ㅏ의 가로획의 길이를 길게 하면 솟아나고 뺏어나가는 기운, 즉 뜻을 보이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리문자를 넘어 뜻문자의 자질까지 갖춘 문자임을 이야기할 때 한글의 예술적인 가치가 확장될 것이며, ‘스물여덟자로도 전환이 무궁하다’는 한글 창제의 기본 정신 위에 무한한 상상력을 허용해야 한글의 멋과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것임을 믿습니다.

▲ 허경무 이사장: 한글은 처음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디자인한 서체와 『훈민정음』 ‘언해본’처럼 붓글씨체로 쓰이다가, 뒤에 ‘궁체’가 파생됨으로써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는데, 붓글씨는 다시 정자, 흘림, 진흘림으로 활용되어 모두 일곱 가지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묘년 새해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자 예술의 독자성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조형미가 한껏 발현되고, 모두에게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한재준 교수: 한글의 원작인 훈민정음은 인류사에 없던 의사소통의 통합 체계입니다. 영원히 남은 책, 삶의 이치와 깨달음을 담은 위대한 작품,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어나 한국 사람만을 위한 작품이 아님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서, 더 나은 통합 한글을 이뤄야 합니다. 문자가 인류 문화 문명을 꽃피운 것처럼, 더 나은 한글로 더 새로운 문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가 중요한 이유



김선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seonkim@korea.kr

이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리말과 다른 나라 말, 아니면 입말과 글말일 것이다. 수어와 음성 언어로 나누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류나 구분은 여러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언어의 형태에 기준을 둔 것들이다. 형태가 아닌 쓰이는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 하나가 공적인 언어, 사적인 언어라는 구분이다.

사적인 언어는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 활동과 형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딱히 소통하는 당사자 또는 그 언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면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적인 언어, 이른바 공공언어는 다르다.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있다. 공적인 언어는 다수의 개인에게 사실이나 의사를 전하는 언어이므로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담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어법에 맞아야 한다. 거친 말이나 차별적인 표현, 비윤리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요즘 공공언어는 과거에 비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표현이나 차별적인 표현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기사, 방송, 광고에서 쏟아지는 언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아직 꽤 쓰인다. 바뀐 몇몇 공공기관의 이름은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 이름만큼이나 낯설고 어렵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aT’가 되었다.

‘맘프러너 창업스쿨’이라는, 한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교육 사업이 있었다. ‘맘프러너’란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가 합쳐진 말로, ‘주부 사업가’ 정도로 표현해도 될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조사에서 창업을 도와주는 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2.5%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이 교육에 대해 잘 알려주니 28%가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당국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여 생업을 꾸리며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정책명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노케어’, ‘U-City’, ‘Wee 프로젝트’와 같은 말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국민 다수에게 등을 돌리는 일과 같다.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리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매년 접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용어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세금 고지서, 보험 상품 설명서, 각종 법률에는 ‘공제’, ‘납세보험’, ‘해태하다’ 등 쉽사리 알아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언어를 쉽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자기의 기본권, 그리고 언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

들을 수 없는 표현들이 한가득이다.

공공언어 중에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용어, 정책용어, 약관이나 계약서의 용어를 쉽게 고친다면 한해 약 3500억 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어려운 용어나 표현 때문에 버리는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바꾸어 본 결과이다.

쉬운 말이 국민의 알 권리, 나아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은 외국에서도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1970년대에 영국에서는 안내문의 어려운 표현 때문에 정부 보조를 신청하지 못해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크리스 마허 여사는 1979년부터 ‘쉬운 영어 운동’을 시작하였고 민간단체를 만들어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쉬운 언어 사용하기가 소비자 보호 운동에 포함되어 결국 2010년에는 ‘쉬운 언어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골자는 행정 서류는 뜻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조리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매년 실적 보고서를 미국 연방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언어를 쉽게 하자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자기의 기본권, 그리고 언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화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의 핵심인 언어에는 평등한 인권이 깃들어야 한다. 언어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생각한 대표적인 이가 세종대왕이다. 그러한 생각은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현대 우리말로 옮긴 어제 서문을 이 기회에 되새겨본다.

“우리나라 말은 중국어와 달라서 한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 중에는 아무리 애써도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적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이가 익혀 일상에서 쉽게 쓰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바람이 분다



홍성진

산업통상자원부 주무관
golange@naver.com

이세돌 기사는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에 승리하였다. 사람들은 이세돌 씨가 인공지능을 마지막으로 이긴 바둑 기사로 기억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바둑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놀랄 만하게 발전하였고,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즉 글쓰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또 다른 언어 권력자가 되어 간다. 과거 이 땅의 언어 권력자는 가짜를 사용하여 진짜를 지배하였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한자를 진짜 글인 진서라고 불렀고, 한글을 천하다는 의미로 언문이라고 말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어를 국어로 불렀고,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부르면서 이류 언어로 다루었다. 광복 이후 우리말은 영어를 비롯하여 외래어에 밀려나는 신세가 되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어 권력자는 순박한 대중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여 억누르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구시대의 언어 권력자도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혁명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붕괴하고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이 같이 살 듯 인공지능은 구시대 언어 권력자를 사라지게 하였지만, 또 다른 언어 권력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맞춤법, 띄어쓰기, 동의어 고치기를 뛰어넘어 창의성이 있는 글짓기까지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라이팅젤, 휘튼’과 같은 글쓰기가 사용되고 있다. 지은이가 들어가 보니 노랫말, 소셜, 일기,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하였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는 호기심보다 마음 한쪽에는 이제 직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사람은 논리 구조나 지식 쌓기나 어려운 말 쓰기로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자어와 일본어와 외래어 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쉬운 우리말은 쉽게 대신할 수 없다. 우리말에는 고유한 리듬과 우리만의 생각이 녹아 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은 우영우, 기러기, 별똥별과 같이 말장난을 표현한다. 이처럼 우리말은 고유한 리듬이 있다.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 우리말로 만든 노랫말이 귀에 잘 들어오는 것은 비슷한 이유이다. 또 등이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우리말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다. 비록 권력자들은 우리말을 천시하였지만,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고, 또 다른 권력자가 나타나도 마지막 승리가 될 것이다.

“


바람은 다른 사물과 호흡하고 조화를 이룬다. 말과 글도 바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호흡하고 공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

왜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면, 지은이는 얼마 전 『공공언어 바로 쓰기의 정석』을 낸 적이 있다. 이 책은 본디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수능 국어에 출제되고 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한정되지 아니하다’는 ‘그치지 아니하다’와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목차만 보아도 맞출 수 있었다. 지은이는 하위 공무원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죽집계 무당이 되었을까? 이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은이가 한자어와 일본어 투에 중독된 수능 출제 위원들보다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분들보다 지식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지은이는 어렵듯이 바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감과 감성을 담아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2021년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할머니의 정과 가족 간의 사랑을 담아 만들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였고, 감성을 자극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의 바람을 맞이하려면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공감과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언제 불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소리와 다른 사물이 움직이므로 알 수 있다. 또 바람은 다른 사물과 호흡하고 조화를 이룬다. 말과 글도 바람처럼 다른 사람들과 호흡하고 공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라고 한다. 성경도 이런 추세와 발맞추어 한자어로 된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과 같이 쉬운 말로 바뀌어 가고 있다.

주말에 공원이나 공터에 나가보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전거 타기는 기초부터 배운다. 기초는 하나하나 밟아야 한다. 처음부터 모기를 부리면 넘어지기 쉽다. 그러면 곳을 보지 않고 눈앞만 본다면 부딪치기 쉽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잘 타려면 힘을 빼야 한다. 부모님은 아이가 어려운 지식을 주입하여 더 똑똑해지길 바라고,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잘하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바람을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고, 공감 능력과 감성을 심어 주어야 넘어지지 않고 부딪치지 않는다. 

반려동물 용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을까?



박예진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9기
20180586@sungshin.ac.kr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외국어로 둘러싸인 반려동물 용품 진열대를 종종 보게 된다. 반려동물의 사료부터 장난감, 생활용품까지 수입 상품이 대부분이지만 국내 상품조차 제품명이나 홍보 문구에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온라인 집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이 2010년 17.4%에서 2021년 27.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반려동물 돌봄족의 비율도 늘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2020년 3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시장이 6조 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업체는 수요에 대응할 만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을 더욱 경계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말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곳저곳 '펫'을 붙인 신조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펫(Pet)'이라는 말을 붙인 신조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으면 '반려동물 돌봄족'이 된다. 자녀를 낳는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르는 '딩펫족'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과 '펫(Pet)'의 합성어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딩펫족'의 우리말 순화어로 '맞벌이애완족'을 선정했다.

가족처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과 우울 증상을 뜻하는 '펫 로스 증후군'은 일상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이다. 국립국어원은 '펫 로스 증후군'을 대체할 우리말 순화어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을 선정했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펫코노미(펫(Pet)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의 순화어인 '반려동물 산업'과 더불어 2021년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행동 언어


고양이나 강아지 등 반려동물의 행동 언어는 보통 외국에서 넘어온 용어를 그대로 쓰곤 한다. 수의사들은 물론 방송이나 언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까지 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양이가 털을 손질하기 위해 혀로 몸을 핥는 용어는 보통 '그루밍'이라고 하지만, 이를 순화한 용어는 따로 찾아보기 힘들다. 간단히 '털 손질'이라고 순화한다면, 그 의미를 모두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이 물고 있는 장난감을 좌우로 당기며 놀아주는 놀이는 '티그 놀이'라고 부른다. 이는 '당김 놀이' 또는 '줄다리기 놀이' 등으로 순화해보는 건 어떨까.

고양이가 앞발을 오므리고 펴며 꺾꺾 누르는 행위는 '꺾꺾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불을 입에 물고 빨려는 행위를 '쭈쭈이'라고 귀엽게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말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표현하면, 누구나 쉽게 그 행동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양이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깹깹'이나 '딱딱'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채터링'이나, 강아지가 혀를 내밀어 코를 핥는 행동을 뜻하는 '릭킹' 등은 어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외국어를 쓰는 반려동물 상품들

다시 반려동물 용품 진열대 얘기로 돌아가 보자. 대부분의 반려동물 상품은 외국어로 되어 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상품은 특정 외국어 이름으로 통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고양이 장난감인 '카샤카샤'다. 카샤카샤는 고양이 낚싯대의 한 종류로, 흔들면 잘각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다. 이는 일본어인 '카샤카샤(かしゃかしゃ)'에서 나온 말로, 직역하자면 '딸가닥딸가닥', '대그락대그락', '잘각잘각'이라는 뜻이다.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잘각잘각 장난감'으로 부를 수 있겠다.

반려동물의 나이를 나누는 말 역시 우리말보다는 외국어가 더 많이 쓰인다. 반려견의 경우, 한 살 이상의 개는 '어덜트', 한 살 미만의 강아지는 '피피'라고 부른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전자를 마찬가지로 '어덜트', 후자를 '키튼'이라고 부른다. '개'와 '강아지', '어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각종 사료나 간식 포장지에는 '피피', '키튼' 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쓰여 있다. 심지어는 7살 이상의 개나 고양이에게 '시니어'라는 표현을 쓴다. 이를 대체할 만한 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 만큼,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때이다. 반려동물 관련 용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려운 철도 용어나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순화했던 것처럼, 반려동물 용어 역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언젠간 우리말로 전부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창의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용기



손창현

나의꿈국제재단 이사장
sonch1@hotmail.com

미국 휴스턴에 본부를 둔 나의꿈국제재단(My Dream International Foundation, 줄여서 MDIF)은 2012년 출범 후 10여 년 동안 오대양 육대주의 62개 국가에 1,000가지의 감동과 1,000가지의 비전을 재외동포 청소년들과 함께 심었습니다.

재단의 창립 후, 첫 행사로 열린,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조선족 청소년들과 함께 엮은 '제1회 중국 청소년 꿈 발표 축제'는 저에게 마음속 깊은 감동을 새겨주었습니다. 특히 8개 조선족 학교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5명 학생들 중에서 일등상을 받은 리영 학생의 발표는 더욱 심금을 울렸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희망을 찾아내고 있는 가운데 문학 작가가 되어 많은 글을 써서 아버지를 위해 바치겠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애써 얼굴에서 감추려던 학생을 보는 행사장은 곧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눈시울을 적시던 청중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 발표한 학생의 꿈을 간절히 응원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 딸의 글이 그 아버지에게는 소망으로 변하여 딸의 작품을 더 많이 읽기 위해 살아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키라고 기원하며 함께 꿈을 꾸었을 겁니다.

매년 같은 나라와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해도 늘 다양한 꿈이 펼쳐지며, 그 꿈들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환경과 삶을 대변합니다. 그 사회의 이슈나 문제점들이 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 외교 문제가 커지면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자신이 두 나라 간의 사이를 중재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남미의 경우는 정착한 1세 분들이 의류 사업에 많이 종사하므로 의류계 진출 및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미국에 건너와 40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을 영어와 함께 살아 온 필자이지만 아직도 대화 중에 가끔 어색한 영어 표현을 쓰게 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아예 아름다운 우리 한국말투 표현이 가슴 속 시원할 때도 있고, 그 한국말의 참맛을 대화에 곁들이기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때, 그 해당 언어권의 생활과 비교 설명해 가며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언어 생활권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익혀 대회에 참가하여 유창하게(물론 종종 서툰 부분이 나오기도 하지만) 발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글을 서투르게 사용하여도 그 노력과 용기에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재외동포 청소년



▲ 제7회 영국 청소년 꿈 발표 축제(2022년 9월 1일, 런던).

년들이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문법 및 규칙의 중요성은 물론이지만 각자의 생활권과 언어권에 맞는 회화체의 한글 교육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권의 미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등을 포함하는 유럽,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지배적인 중남미, 그리고 일본, 중국, 몽고 등등 다양하게 교수 방법이 언어권마다 세분되어 집중적으로 전해질수록 해당 지역 한국계 청소년들은 한글 교육에 더욱 친근히 다가갈 수 있게 되며 한국어 사용을 더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학교의 교육은 '샘물 교육'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어 나오며 주위를 적시듯, 우리 2세들의 가슴을 한국의 정서로 적시며 한국의 깊은 전통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학교들과 그 교사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많이 부족한 교육 여건에도 꾸준히 한국어와 한글이 교육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든 지속적으로 각 국가와 문화에 맞추어 좀 더 친근한 방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이어 나갈 재외동포 2세들에게는 더 밝은 한국 언어문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꿈국제재단은 쉬지 않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의 말과 정서가 담긴 꿈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재단의 장학생들과 후원자 등 재단의 모든 식구들을 칭하는 'MDIFians'와 함께 2대 중점 사업인 청소년 꿈 발표 축제와 글로벌 장학 사업의 확장은 물론이고 한글의 사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의 개발로써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재외동포 청소년 및 청년들의 등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

제1회 한글·한국어 유튜브 국제 공모전 수상 소감



배유미

드로잉 작가
d_log@naver.com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한글·한국어 축제의 장! ‘한글, 나누다’라는 작품으로 ‘한글·한국어 유튜브 국제 공모전’(K-Language Festa) 축제에 참여하며 누구보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과 상금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나누고 즐기는 축제에 함께 했다는 것, 무엇보다 한글과 한국어 교육 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소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축하를 전해주시신 감격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한글, 나누다’는 한국만의 창조적인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한류의 토대, 한글로 나누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케이팝, 영화와 드라마 등 나이와 나라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문화의 힘을 담았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한글 가온길, 한글도시 세종시의 이용다리, 한글을 문자로 채택한 부족 등 한글을 나누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놀이동산처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림으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참여했던 이번 축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없는 이들에게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한글도시 세종시의 도로명과 행정구역, 1446m의 보행다리에 한글로 된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도, 한글을 지켜낸 수많은 이들의 피와 보다 잘 사용할 수 있게 발전시켜온 노력 덕분에 지금의 독창적인 문화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열렸던 정동1928 아트센터로 가기 위해 일부러 광화문광장과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한글 가온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 구석구석에 깃든 역사를 되새기며 도착한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을 만났던 의미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글을 더욱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고자 마음먹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한국어 축제의 장이 첫 번째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나아가 앞으로 오래도록 이어져 세계와 한글을 나누기를, 앞으로의 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글날’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반대한다!

2022년 11월 29일 자로 홍익표, 김영배, 김종민, 신정훈, 유정주, 이병훈, 이원욱, 임호선,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은 한글 창제의 뜻과 한글날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적극 반대한다. 한글날은 가장 으뜸으로 경축해야 할 국경일이며 성스럽고 은혜로운 날이지 결코 일상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할 날이 아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하였기에 반대 이유를 담은 반대 성명서를 내어 분명히 밝혔었다. 그때에 이미 ‘한글날’의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국민의 반대에 따라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을 들고 나선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말과 글을 낮추어보는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역사를 거스르는 법안 만들기에 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우리 말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영뚱한 데에 신경 쓰다 보니 「국어기본법」을 잘 지켜 써야 할 공공기관이 앞다투어 외국말과 외국문자를 마구 쓰며 우리 말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한글을 홀대하고 우리 말글의 가치와 겨레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글은 창제 날짜와 반포 날짜를 역사 기록물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며, 한글날이야말로 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경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글날은 우리 학회에서 1926년에 처음 제정한 뒤,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라 1945년부터 10월 9일로 확정하여 기려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한글과 한글날의 유래를 무시하고 한글의 소중함을 모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문화유산 보존에 반하는 법률 개정애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세종대왕께서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과 소통하고자 하였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자주 사상에 바탕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숭고한 뜻을 저버리고자 하는가? 지정 요일제에 힘쓸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한글날 경축식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가치를 온 누리에 알리고 한글날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 힘써 주길 바란다.

2022. 12. 9.

한글학회

동대문구와 공공언어 사용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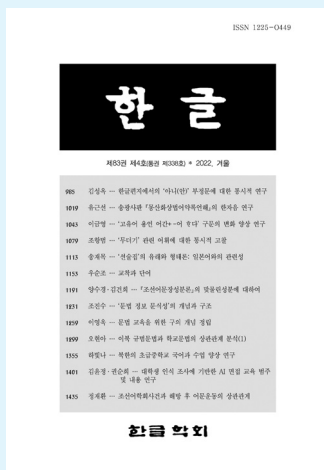


▲ 왼쪽부터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김주원 회장, 김은경 동대문구 홍보담당관, 김한빛나리 사무국장.

우리 학회와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2월 14일(수) 오후 3시 동대문구청 5층 구청장접견실에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우리 말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앞으로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자료 △우리말 바로 쓰기 관련 등을 위한 자료 제공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날 특별기고 등을 비롯하여, 올바른 우리 말글 사용을 위한 그 밖의 일들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과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김한빛나리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글』 제83권 제4호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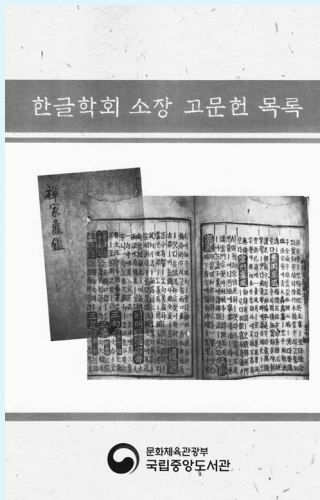
『한글』 제83권 제4호(통권 제338호)가 나왔다. 2022년 12월 30일 펴냄. 새국판, 508쪽, 값 15,000원. 이번 치에 실린 국어학·국어교육 논문 열세 편의 글쓴이들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

△김성옥: 한글편지에서서의 ‘아니(안)’ 부정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유근선: 송광사판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의 한자음 연구
 △이규영: ‘고유어 용언 어간+어 허다’ 구문

의 변화 양상 연구 △조항범: ‘무더기’ 관련 어휘에 대한 통시적 고찰 △송재목: ‘선술집’의 유래와 형태론: 일본어와의 관련성 △우순조: 교착과 단어 △양수경·김건희: 『조선어문장성분론』의 맞물린성분에 대하여 △조진수: ‘문법 정보 문식성’의 개념과 구조 △이영옥: 문법 교육을 위한 구의 개념 정립 △오현아: 이복 규범문법과 학교문법의 상관관계 분석(1)—『문화어문법규범초고』(1972),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 2011), 『조선문화어문법』(1979), 『조선문화어1, 2』(2003)의 문장론을 중심으로— △하빛나: 북한의 초급중학교 국어과 수업 양상 연구—북한의 ‘국어교수방법론(사범대학)’, ‘국어교수참고서(초급중학교 제1학년)’, ‘국어교수설계(사범대학)’ 분석을 중심으로— △김윤정·권순희: 대학생 인식 조사에 기반한 AI 면접 교육 범주 및 내용 연구 △정재환: 조선어학회사건과 해방 후 어문운동의 상관관계—해방 후 조선어학회 어문운동의 원천이 된 조선어학회사건—.

『한글학회 소장 고문헌 목록』 나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민간 소장 고문헌 조사·정리 용역 사업으로 11월 24일에 『한글학회 소장 고문헌 목록』을 펴내었다.

이 목록집은 우리 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678종 855책과 우리 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428종 2,682책 등 모두

1,106종 3,537책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주요 자료 31종을 선정, 상세 해제를 작성하여 목록의 앞 부분에 수록하였다. 또, 인장 판독 결과와 서책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번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연구소(연구 책임자: 옥영정 교수)에서 수행하였다.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

한말글문화협회



▲ 2022년 해님이 모임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에 참석한 이들.

우리 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대표: 이대로)는 12월 9일(금) 오후 5시부터 한글회관 강당에서 “세종대왕 뜻과 한말글을 살리고 빛내자!”라는 주제 아래, 2022년 해님이 모임 ‘한말글 사랑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김들풀(한국어인공지능학회 부회장) 님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이대로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우리 학회 김주원 회장과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차재경 대표를 비롯한 20여 명의 한말글문화협회 회원들이 토론 마당에 참여하였다.

한글·한국어 영상 공모전

한문화재단·세종국어문화원



▲ 제1회 한글·한국어 영상 공모전 시상식 모습.

한문화재단(이사장: 김준익)이 주최하고 세종국어문화원(원장: 김슬옹)이 주관한 제1회 한글·한국어 영상(유투브)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금) 오후 7시에 정동 1928 아트센터(서울시 중구)에서 열렸다.

이 공모전은 한글과 한국어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세

계인과 함께 만들고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글·한국어 교육’, ‘한글·한국어 이야기’ 2개 부문에 걸쳐 응모된 작품들 중 모두 30편이 입상작으로 뽑혀 상을 받았다. 주요 상을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배우미(드로잉 작가).

△최우수상: [‘한글·한국어 교육’ 부문] 이경민(한국어 교원), 알리아 아흐와툴 카리마(인도네시아, 유투버). [‘한글·한국어 이야기’ 부문] 우랄로브 테무르베크(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방주빈(아프리카 기니비사우 거주).

△우수상: [‘한글·한국어 교육’ 부문] 강산호(한국어 교원), 늘푸른자연학교(경기도 여주시), [‘한글·한국어 이야기’ 부문] 박진경(소리꾼), 윤혜진 외(아프리카 기니 거주).

우리말 약어 만들기 학술대회

국어문화원연합회·한글문화연대



▲ 2022 쉬운 우리말 쓰기, 공공언어 개선 학술대회 모습.

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에서 주최하고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가 주관한 “2022 쉬운 우리말 쓰기, 공공언어 개선 학술대회”(주제: 우리말 약어 만들기)가 12월 2일(금) 오후 1시에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 및 언론에서 사용하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정 등의 로마자 약칭을 우리말 약칭으로 대체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춘천교대 리의도 명예교수의 진행에 따라 6명의 발표자가 각 30분간 발표를 한 후,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통해 논의를 주고받았다.

[주제 발표] △이정복(대구대 교수): 줄임말 문화의 긍정성과 부정성 △김명진(한글문화연대 부대표): 정부 보도 자료의 로마자 약어 사용 실태 △이경우(서울신문 어문기자): 언론의 줄임말 문화-로마자를 중심으로 △김석영

(한국교원대 교수): 중국의 로마자 약어 사용 현황 △이은용(이화여대 강사): 일본의 로마자 약어 사용 현황 △최형용(이화여대 교수): 우리말 줄임의 실험적 제안.

[종합 토론] △김주만(문화방송 기자), △라동철(국민일보 논설위원),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헬버트 박사 일대기 독후감 공모전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 헬버트 박사 일대기 독후감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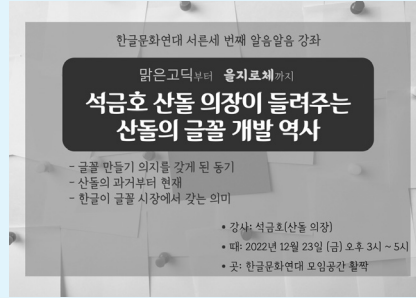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회장: 김동진)는 헬버트 박사 일대기 『헬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에 대한 2022년 독후감 공모전(2022. 5. 10.~11. 15.) 상 드리는 식을 12월 15일(목) 오후 2시 30분에 독립유공자복지회관(서울시 마포구) 강당에서 열었다. 상을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무궁화상(국가보훈처장상): 문희주(영화감독),
- △백옥상(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상): 박현준(장로교 안양노회 목사), 안윤자(시인/수필가),
- △한라상(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상): 이자성(KBS 카메라 감독), 최진용(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표이사), 황현탁(전 주일한국대사관 홍보공사, 현 여행작가),
- △아리랑상(서울YMCA 회장상): 김소형(SF한국문학인협회 회원), 김수라(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연구원), 류호정(기독교대한감리회 철원소망교회 목사), 박용훈(서울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유영미(미국 럿거스대학 동양학과 한국학 교수).

12월 알음알음 강좌

한글문화연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12월 23일(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한글문화연대 모임 공간 '활짝'에



서 서른 세 번째 알음알음 강 좌 를 열었다. 이번 강 좌는 석 금호(산돌 의장) 님

이 "산돌의 글꼴 개발 역사"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산돌 글꼴 개발 역사를 비롯하여, 글꼴 만들기 의지를 갖게 된 동기, 한글이 글꼴 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의견을 펼쳤다.

제22회 짚신문학상 시상식

짚신문학회



▲ 제22회 짚신문학상 수상자와 회원 및 참가한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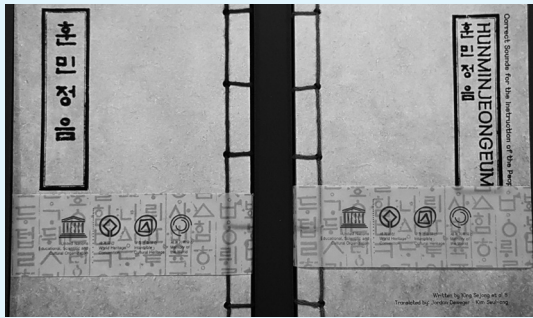
짚신문학회(회장: 오동춘)는 12월 16일(금) 오후 3시부터 한글회관 강당에서 "제22회 짚신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짚신문학』 제24호(2022. 12. 16.) 출판 기념회를 겸한 이날 시상식은 임문혁 수석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대표이사와 헬버트박사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이 축사를 베풀었다. 상을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시조 부문/ 이상진(시조시인),
- △본상: 시 부문/ 공승자(시인),
- △우수상: 시 부문/ 김경애(시인),
- △공로상: 박노황(시인).

『훈민정음』 손바닥책 영문본 나눔

문화기획 소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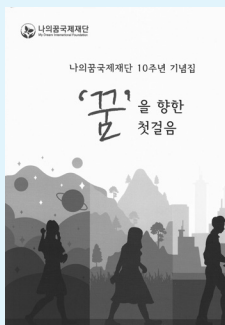


문화기획 소희연(대표: 육선희)은 세종 정신과 훈민정음의 가치를 모든 세계인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 손바닥책 한글본과 영문본 세트를 발행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영문 번역본과는 달리 훈민정음 모든 글꼴을 온전하게 보여주면서 발음을 국제음성 기호로 완벽하게 병기해 외국인이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영문본에서는 훈민정음 글꼴을 집자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꼴의 품격과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게 했다. 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장)님이 기획하고, 문관효(한글서예가)님이 『훈민정음』 해례본 현대말 번역문(한글본) 전문을 모두 썼다.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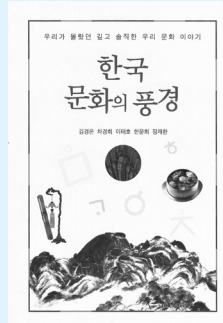
♣ ‘꿈’을 향한 첫걸음



나의꿈국제재단(이사장: 손창현)에서 펴낸 책. 2022년 11월 5일, 4×6배판, 245쪽, 팔지 않음.

이 책은 나의꿈국제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편찬된 기념집이다. 재단의 소개와 전 세계 한국계 청소년·대학생들의 인터뷰, 세계 지부 및 연합, 재단이 펼치는 사업에 대한 각계 응원 글들을 싣고, ‘청소년 꿈 발표 축제’ 사진들을 모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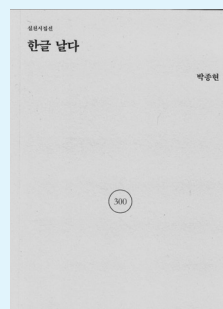
♣ 한국 문화의 풍경



김경은(경향신문 전 편집위원)·차경희(전주대 교수)·이태호(명지대 석좌교수)·한문희(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정재환(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님들이 함께 지은 책. 2022년 10월 13일, 종이와나무 펴냄. 새국판, 261쪽, 값 18,000원.

이 책은 우리 고유한 문화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져 온 여섯 가지 문화 양식, 곧 ‘한복’, ‘한옥과 정원’, ‘비빔밥’, ‘진경산수화’, ‘책거리’,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 살피고 있다.

♣ 한글 날다



박종현(말구술문학회 대표)님이 지은 책. 2022년 10월 20일, 실천문학사 펴냄. 국번형판, 124쪽, 값 10,000원.

이 책에 실린 시 작품들은 한글의 구성 원리와 상형 원리에 대한 깊은 사색과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글의 체계와 원리를 시적 이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 K-POP 原論



노마 히데키(전 동경외대 대학원 교수)님이 지은 책. 2022년 12월 1일, 하자(ハザ, 일본 교토시) 펴냄. 4×6판, 419쪽, 값 (일본화) 2,970엔.

지은이는 이 책에서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을 언어학과 미학의 시점에서 비추어 보았으며, 특히 케이팝 뮤직비디오와 그 안에 담긴 한국어를 집중 분석했다. 지은이는 우리 학회 ‘주시경 학술상’ 수상자(2012)이자 『한글의 탄생』(2011/2022)으로 잘 알려진 언어학자이다.

♣ 누룽지와 눌은밥

음식점에 따라 밥을 먹은 뒤에 입가심으로 구수한 국물이 있는 ‘눌은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음식점에서는 이를 두고 ‘누룽지’라 하는데, 그렇게 먹는 것은 누룽지가 아니라 눌은밥이다. 밥이 숟바닥에 눌러붙어 딱딱하게 굳은 것은 누룽지이고, 숟바닥에 눌러붙은 밥에 물을 부어 불려서 굵은 밥은 눌은밥이다. 흔히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구수한 국물이 있는 밥은 누룽지가 아니라 눌은밥이다.

밥이 조금 타서 밥솥 바닥에 붙어 있으면 이를 “밥이 눌었다.”, 또는 “밥이 눌러붙었다.”라고 말한다. 이때의 ‘눌다’는 누런빛이 나도록 조금 탄 것이고, 그렇게 타서 눌러붙으면 누룽지가 되는 것이다. 또, ‘눌어붙다’는 “그는 우리 집에 한 번 놀러 오면 며칠이고 눌러붙어 있다.”처럼 한곳에 오래 있으면서 떠나지 않을 때에도 쓰이는 말이다. 이를 ‘눌러붙다’라고 하는 것은 ‘눌어붙다’의 잘못이다. 〈역은이〉

♣ 우리말 알아맞히기

『한글 새소식』은 다달이 ‘우리말 알아맞히기’ 자리를 마련합니다. 답을 골라 1월 15일까지 saesosik@hangeul.or.kr로 이름, 연락처, 사는 곳(시·군 단위까지)을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정답을 맞힌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세 분을 뽑아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권)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알아맞히기’는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에서도 함께 진행합니다.

※ [1월의 문제] 다음 중 ‘누룽지/눌은밥’의 쓰임이 가장 알맞은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① 구수한 국물이 있는 누룽지를 먹었다.
- ② 누룽지에 물을 붓고 눌은밥을 만들었다.
- ③ 솥에 밥이 눌러붙어서 누룽지를 끓였다.

– ‘12월의 문제’ 정답

『한글 새소식』 제604호와 페이스북 한글학회 마당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하였던 ‘우리말 알아맞히기’의 정답은 “① 오늘 점심값은 각출합니다.”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아래 두 분을 뽑아 각각 모바일 문화상품권(10,000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정답 풀이는 지난 호 24쪽 “각출과 각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한나(서울시), 이현성(경기도 성남시)

♣ 도와주신 이들

“고맙습니다”

※ 한글학회에 성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11. 24.~12. 23.).

강진모 30,000원 / 권오웅 20,000원 / 김경숙 10,000원
 문무학 20,000원 / 방극률 10,000원 / 성다힘 20,000원
 여여홍인 10,000원 / 유영곤 20,000원 / 이선애 10,000원
 이은아 30,000원 / 이종구(성우) 10,000원 / 장호철 10,000원
 조재수 100,000원 (성금 계좌: 국민 009-01-1340-166 한글학회)

※ 『한글 새소식』 후원금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11. 24.~12. 23.).

김경숙 10,000원 / 김룡철 10,000원 / 홍성호 100,000원
 (후원 계좌: 우리 109-05-004155 한글학회)